



한국 古代 女性の 지위

저자 (Authors)	金杜珍
출처 (Source)	한국사 시민강좌 15 , 1994.8, 20-38 (19 pages)
발행처 (Publisher)	일조각 ILCHOKAK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86878
APA Style	金杜珍 (1994). 한국 古代 女性の 지위. 한국사 시민강좌, 15, 20-3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4 15:3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古代 女性의 지위

金 杜 珍

- | | |
|---------------------|--------------------|
| 1. 머리 말 | 4. '孝'의 강조와 여성의 德目 |
| 2. 女司祭의 遺風 | 5. 맺음 말 |
| 3. 觀音신앙의 流行과 女性의 활동 | |

1. 머리 말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졌다. 최근에는 여성을 소재로 한 문학뿐 아니라 예술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민족문화의 창달에 공헌한 여성들의 역할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女性史에 대한 관심은 여자대학교에서 대체로 여성 연구자들에 의해 표명되어 왔으며, 아직은 그 연구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 속에서 여성사가 정당한 위치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국고대사에서 여성사는 꼭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사실 上古代의 사회에서 상층 계급으로 등장해 가는 수단은 祭祀를 관장하는 것과 冶金

필자 : 國民大學校 文科大學 國史學科 교수.

저서로는 『均如華嚴思想研究』(韓國研究院, 1981; 증보판, 一潮閣, 1983)가 있고, 논문으로는 「朗慧와 그의 禪思想」(『歷史學報』 57, 1973)을 위시하여 「新羅 公認佛敎의 思想과 그 政治的 意味」(『李丙養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了悟禪師順之의 禪思想」(『歷史學報』 65, 1974),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風水地理說에 대한 再檢討——」(『東方學志』 57, 1988) 등 우리나라 佛敎史에 관한 것이 많이 있다.

기술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 중 제사에 여성이 깊이 관여하였다. 그리하여 흔히 고대 여성사는 巫俗史의 연구와 병행하여 추구되었다. 한국고대사에서 여성사의 연구는 土着신앙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한국 고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본래 가졌던 女司祭의 유풍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사제의 유풍을 많이 간직하고 있던 삼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다가 여성의 지위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변천해 갔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점을 밝히기 위해 불교나 유교이념을 수용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모습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2. 女司祭의 遺風

한국 고대사회에 母系制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엄격한 의미의 모계제는 재산이나 族長權이 어머니에게서 딸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의 모계제는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딸로 또는 아버지에게서 사위로 전해지는 것이다. 신라에서 女王이 등극하였으며 왕위가 사위에게로 전해진 경우는 있었지만, 한국고대사에서 전형적인 모계제가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다.

사회·경제면에서 母權이 강했던 시기는 초기 농경사회가 성립되었을 때였다. 수렵이나 목축에 젖어 있던 부족사회가 모계 중심으로 정착하여 농경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父系집단은 수렵이나 목축지를 찾아 이동하고 있었다. 자연 모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가 보다 강한 연대성을 갖게 되었고, 한 여성에 대한 남편이 둘 이상으로 되는 對偶婚이 행해졌다. 朱蒙신화 속의 柳花는 解慕漱와 정을 통하고는 다시 金蛙王과 결혼하였으며, 단군신화 속의 熊女도 호랑이와 한 동굴에 거주하였으나 뒤에 다시 桓雄과 혼인하였다.

柳花나 웅녀 등은 본래 토착사회의 부족집단이 독자적으로 받들었던 祖上神이었다. 先住한 토착부족은 邑落을 중심으로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는 조상신인 지모신에 대한 제사를 받들고 있었다. 地母信仰의 존재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데, 그러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崔淑卿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女神에게 농사의 풍작을 비는 사상은 구석기시대 비너스 이래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한편 이러한 농경에 있어서의 여신의 숭배는 농경이 채집에 종사하던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 뒤 일정 기간 동안 줄곧 씨뿌리고 밭갈아 100배, 1,000배의 수확을 올리던 농경의 주인공이 여성임을 시사하는 것이다.¹⁾

신석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豊饒의 신인 大地母神과 연계되어, 생산과 번식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靑銅器시대 이후에 인류는 금속을 사용하여 급격한 사회변혁을 겪게 되었다. 청동이나 鐵製 무기로 무장한 부족들이 말을 타고는, 아직도 石器로써 자급자족하던 농경사회를 약탈하거나 정복하여 그들이 경작한 농산물을 빼앗아 갔다. 금속을 제련할 수 있는 부족과 그렇지 못한 부족 사이에 빈부의 차이를 가져와 지배와 복속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배계급 중심의 사회체제를 정비하면서 국가가 성립되어 갔다.

금속을 사용하면서 인류는 대혁명을 맞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에 큰 변동이 생겼다. 그것은 여성의 남성에 의한 종속이다. 사실 금속제 무기는 남성의 전유물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최숙경은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금속문화의 등장은 인류생활에 여러모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선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또 종래의 종교적 관념에 많은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종래 주술 속에 불가능했던 여러 일이 금속이 쓰여진 새로운 기술로써 극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 믿어 온 여성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관념도 차츰 바뀌고 여성을 보는 눈이 전과 달라져 갔다. 그에 반비례하여 금속은 여러 면에서 실력을 과시하게 되었다.²⁾

중앙의 왕실이 정복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이웃의 작은 城邑국가를 병합해 가는 과정에서 금속제 무기의 사용은 철저한 家父長制 사회의 성립을

1) 崔淑卿·河炫綱 공저, 『韓國女性史 古代—朝鮮時代』, 梨大出版部, 1972, p. 24.

2) 위의 책, p. 33.

가져왔다. 가부장제 사회내에서 여성의 투기죄를 엄격하게 다루었는데, 이에 대해 李基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姦淫과 투기의 처벌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여에서는 가족제도에 관한 규정이 중요시되었음이 눈에 띄는데, 투기죄에 대한 가혹한 규정은 一夫多妻制의 풍습이 상류층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규정도 하필 부여에 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고구려의 長髮美人으로 유명한 貫那부인이 사형을 받은 것은 투기죄에 대한 처벌의 산 예에 속한다.³⁾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투기죄를 엄하게 다스려 사형에 처하였지만, 백제에서는 간음한 여성을 籍沒하여 夫家の 婢로 삼았다.⁴⁾ 일부다처제가 행해졌을 경우 가부장을 중심한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들 사이의 투기가 억제되어야 했으며, 그 결과가 이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나타났던 것이다.⁵⁾

투기죄에 대한 처벌은 초기 농경사회에서와는 달리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대에 왕실 중심의 귀족국가가 성립되고 난 후, 중앙 왕실의 가부장적인 관념체제로 정리된 것이 개국신화이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세한 유이민 부족이 신봉한 天神과 이들에게 정복당했거나 흡수 동화된 토착부족이 받들었던 地神이 결합하여, 국가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을 낳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신신앙이 가부장적인 성격을 지녔다면 지신신앙은 지모신에 뿌리를 둔 것이다. 신화체계 내에 지신신앙이 존재하거나 또는 蘇塗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 독자적 토착적인 조상신앙 속에 지모신앙이 溫存할 수 있었다. 신라 개국신화의 闕英은 지모신앙과 연결이 가능했던 존재였다. 仙桃山의 神母가 아들을 낳아 동쪽 나라의 시조가 되었다는 신앙이 퍼져 있었다. 그런데 신모와 그 아들은 알영과 朴赫居世로 알려지기도 했다.

3)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67, 新修版, p. 56.

4) 『北史』, 東夷傳, 百濟條.

5) 李基白, 「夫餘의 투기죄」, 『史學志』 4, 1974, p. 10.

고구려 건국신화 속의 柳花도 역시 지모신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구려에는 두 神廟가 있는데, 그 하나는 夫餘神으로 나무를 새겨 부인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高登神으로 시조 부여신의 아들이라 한다. 부여신이 河伯의 딸이라면, 고등신은 주몽이다. 고구려 왕실이 가부장적인 개국신화를 성립시키고 난 후에도 부여신의 존재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唐軍의 공격으로 함락 위기에 직면한 고구려의 요동성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은 성내에 있는 朱蒙祠에 부인신을 배향했기 때문이다. 요동성 내 주몽의 사당에는 갑옷과 창이 있었는데, 그 물건은 前燕시대에 천신이 내려준 것이라고 전해진다. 唐軍의 포위가 한창이어서 성이 위급할 적에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다가 婦神으로 꾸며 놓고, 무당이 말하기를 “주몽이 기뻐하니 성이 반드시 안전할 것입니다”(『三國史記』 권 21, 寶藏王 4年 5月條)라고 하였다. 이렇듯 고구려에서는 여신에 대한 제사가 줄곧 이어져 왔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삼국시대에 여신 내지 지모신에 대한 신앙은 영향력을 가지면서 후기가 지 광범하게 믿어져 왔다. 지모신에 대한 제사는 일반적으로 여사제가 많고 있었다. 南解王의 누이인 阿老는 제사를 주관하였으며, 南解王妃인 雲梯부인은 운제산의 聖母가 되었는데 성모에게 기우제를 드리면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아로나 운제부인은 여사제로 이해되고 있다.⁶⁾ 삼국사회에 가부장적인 제천의례가 성립되고 난 후에도 지모신앙과 관련한 여사제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유풀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다음 경우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다.

- ① 해와 달의 정기로 여겨졌던 延烏郎과 細烏女가 일본으로 건너 가서 각각 왕과 왕비가 되자,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광채를 잃었다. 신라 조정은 사신을 보내어 이들을 모셔 오려 했으나, 세오너는 돌아 가지 않은 대신 스스로 짠 베를 가져가 천신에게 제사하면 될 것이라 하였다. 신라 사신은 그 베를 가져와 제사하니 해와 달이 옛날과 같아졌다. 그것을 국보로 삼아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그 창고를 貴妃庫라 하였다(『三國遺事』 권 1, 延烏郎 細烏女條).
- ② 王이 군사를 내어 부여를 칠 때 沸流水에 이르러 물가를 바라보니, 어떤 여인

6) 姜英卿, 「韓國 古代社會의 女性——三國時代 女性의 社會活動과 그 地位를 中心으로——」, 『淑大史論』 11·12합집, 1982, p. 170.

이 술을 들고 遊戲하는 것 같아서, 가 보니 술만 남아 있었다. 그것으로 밥을 짓게 하였더니,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더워졌다. 밥을 지어 온 군사를 배부르게 먹였다. 갑자기 한 장부가 나타나 이르기를 “이 술은 본래 내 집 물건인데 내 누이가 잃어버렸으나, 지금 왕이 발견하였으니 줘야 드리겠습니까”고 하므로, 그에게 賈鼎氏라는 성을 내렸다(『三國史記』 권 14, 大武神王 4년 12월조).

세오녀가 짠 베나 대무신왕이 비류수 가에서 발견한 술은 모두 제의에 사용되었던 물건임이 틀림없다. 베나 술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한 제사를 주관한 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비류수 위에서 술을 들고 유희하는 여인의 모습은 여사제가 祭儀를 주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⁷⁾ 이러한 제사는 국가적 제의로 흡수되어 체계화되기 이전에는 독립된 지모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아마 세오녀는 迎日縣 지역에 존재했던 부족제를 주관하였다면, 비류수 가에서 발견된 술은 부정씨 부족의 제의에 사용되었던 祭器였을 법하다.

삼국시대에 국가적 제의에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본래는 여사제가 주관한 독립된 지모신을 제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는 다소 더 찾아진다. 訥祗王代에 일본으로 들어가 인질이었던 신라 왕자 寶海를 구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한 朴提上의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鵝述神母가 되었다. 아마 박제상의 부인은 치술신모를 모시는 제의에 깊이 관련되었던 인물임이 분명하다. 또한 加耶國 首露王妃인 許왕후는 阿踰陀國에서 배를 타고 김해 지역의 別浦津에 닿았는데, 육지로 오르면서 입었던 비단 옷을 벗어 그것을 폐백으로 삼아 山靈에게 드렸다. 곧 그것은 산신령에 대한 제사임이 틀림없고,⁸⁾ 허왕후 역시 지모신에게 제사하는 유품을 보여 주고 있다.

삼국시대에 여사제의 유품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老驅의 존재이다. 신라 건국신화 속의 알영은 老驅에 의해 양육되었다. 또한 脫解는 多婆那國王妃의 소생인데, 처음 알로 태어나자 배에 태워 바다에 띄워졌다. 알에서 깨어난 탈해는 동해 변의 阿珍浦에 이르렀는데, 그를 거두어 양육한

7) 강영경, 위의 글, p. 171.

8) 강영경, 위의 글, p. 164.

자가 老母였다. 여기의 노모는 박혁거세의 海尺母로 표현되어 있는데, 노구와 같은 존재로 파악된다. 박혁거세의 해척모는 아마 동해변 아진포 지역에서 제의를 주관했던 자의 관직명이었을 것이며, 해척모인 노모는 제관이었을 것이다.⁹⁾

알영이나 탈해를 양육한 노구는 본래 지모신을 받들던 여사제의 변화된 모습으로 생각된다. 노구에 대해 崔光植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노구의 성격은 신모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모 자신이 現身한 존재로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신모가 알영의 양육을 부탁한 保護神靈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다.¹⁰⁾

노구는 신모 자신이거나 또는 보호신령이라는 표현이 꼭 모호하진 하지만, 신령을 보호하는 자 혹은 신모의 신령이 내린 자인 사제로 이해되었다.

요상한 일이나 불길한 징조를 보일 경우 노구는 남자로 변하거나 여우로 변하여 도망가기도 했다. 백제 濫祚王代에 노구가 남자로 변하자 왕의 어머니가 돌아갔으며, 東城王代에는 노구가 여우로 변하여 도망가자 昔加가 보낸 자객에 의해 왕이 살해되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징후를 감지하고 豫智하는 능력을 가진 노구는 왕의 측근에서, 실제 일어났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왕정을 보필하기도 했다. 다음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고구려에 온 부여의 사자에게 왕자 無恤이 “지금 여기에 累卵이 있는데 大王께서 그 알을 헐지 않으면 臣이 장차 대왕을 섬기겠으나, 그렇지 않은 즉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돌아가 보고하게 했다. 부여왕이 이 말을 듣고 群臣에게 물으니, 한 노구가 “누란은 위태하나 헐지 않으면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왕께서는 자신의 위태함을 모르고 굴복시키기보다는, 그 위태함을 안전으로 전환시켜 스스로 다스림만 같지 못하다”고 했다(『三國史記』 권 13, 高句麗 瑠璃王 28년 秋 8월條).

9) 나의 글, 「新羅 昔脫解神話의 形成基盤——英雄傳說的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學論叢』 8, 1986, pp. 15~16.

10) 崔光植, 「三國史記 所載 老軀의 性格」, 『史叢』 25, 1981, p. 8.

부여의 노구는 고구려와의 외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노구는 왕정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炤知王代에 古陀郡의 노구는 왕이 捺已郡 사람인 波路의 딸 碧花를 만나기 위해 微服으로 갈아 입고 몰래 다니는 것을, 마치 “龍이 어부에게 잡힌 꼴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를 들은 왕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벽화를 데려다가 궁중의 별실에 두었다고 했다. 여사제의 유풍이 강하게 남아 있던 삼국시대 초기 사회에 여성은 국정을 보익하거나 비판하면서 왕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런 전통은 통일신라 시대에까지도 간간이 이어져서 孝成王 4년에 자주색 옷을 입은 여인이 다리 아래에 출현하여 朝廷을 비방하기도 했다. 초기 농경사회에 여성은 농업생산을 주도하면서 남성에 비해 그들의 지위가 낮지 않았다. 철기를 사용하면서 남성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성은 지모신을 받드는 제의의 사제로서 활약하였고 그러한 전통의 유풍은 삼국시대 초기 사회에 널리 전해져 있었다. 당시의 여성들은 제사를 관할하는데 깊이 연고되어 있었으며 왕정을 보필하기도 하였으므로, 아직도 그들의 지위는 후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3. 觀音신앙의 流行과 女性의 활동

한국 고대사회가 왕권 중심의 귀족국가 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수용되었다. 처음 불교는 왕실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公認되면서 귀족 불교로 발전하였다. 이제 巫敎的인 토착신앙 대신에 불교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전 토착 신앙이 사회를 이끌어 가던 시대에서 보다는 못할지라도, 불교신앙 내에 여성들의 활동은 여전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다. 阿道가 신라에 불교를 전하는 과정에서 毛禮의 누이인 史氏가 깊이 관여하였는가 하면, 尼僧團이 조직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고대 불교에서 여성의 활동이 활발하고 그 지위가 높았다는 것은 관음신앙의 모습에서 읽을 수 있다. 관음은 본래 ‘觀世音’으로 불렸는데, 그 뜻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觀照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사소한

소원을 다 듣고,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주기 때문에 관음은 일반 대중과 가장 친숙할 수 있었다. 관음은 이마에 여래상을 지닌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여성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았다. 인도에서의 관음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그것은 일부 南部 지역을 제외하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대 불교에서는 관음이 대체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의상이 창건한 洛山寺에 모셔진 관음은 한국 고대의 관음신앙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만하다. 補陀洛伽山의 준말로서 洛山은 관음의 聖地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의상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元曉가 관음의 眞身을 친히 만나고자 하여 낙산사로 나아가는 모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원효가) 남쪽 교외의 논에 이르렀는데, 白衣를 입은 여인이 나락을 베고 있었다. 대사가 농담으로 나락을 구하니 여인이 벼 이삭을 건네주었다. 더 나아가서 다리 아래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 생리에 관한 옷을 빨고 있었다. 대사가 물을 구하자 여인이 빨래로 더럽혀진 물을 떠서 주었다. 대사가 그것을 버리고 깨끗한 물을 떠서 먹었다. 마침 언덕의 소나무에 앉아 있던 한 靑鳥가 우둔한 和尚이라 부르고는 갑자기 숨어 보이지 않았다(『三國遺事』 권 3,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條).

聖俗의 구별을 초월한 원효에게서 더러움과 깨끗함의 차별은 무의미한 것인데, 굳이 깨끗한 물을 떠서 마신 원효는 我執을 가진 것으로 비쳐졌다. 그래서인지 낙산사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풍량이 몰아쳐서, 원효는 觀音窟에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원효가 이미 만났던 白衣를 입은 여인과 생리에 관한 빨래를 빨고 있는 여인은 관음의 眞身이었다. 낙산의 관음은 대지모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 준다. 나락을 베고 있는 여인이나 생리에 관한 빨래를 빠는 여인은 모두 여성이 가진 생육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지모신의 생육능력은 대지가 스스로의 양분으로써 모든 만물을 소생시켜 길러내게 하는 것인데, 생물이 그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토착신앙 속에서 대지모신이 가졌던 이미지가 관음신앙으로 흡수되어, 중생에게 복을 심고 혜택을 내리는 가장 친근한 보살로서 관음이 자리하게 되었다.

공인 이후 불교가 귀족 중심으로 수용되어 그 사상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眞平王代에 仙桃聖母가 크게 佛事를 베푸는 緣起설화가 전한다. 다음 기록이 이를 알려준다.

眞平王代에 智慧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賢行을 많이 했다. 安興寺에 머물면서 새로 불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했다. 꿈에 한 女仙이 나타나 위로 하되 “나는 선도산 성모이다. 네가 불전을 수축하려는 것이 기뻐서 금 10 근을 시주하여 돕기를 원한다. 마땅히 내가 앉은 자리 밑에서 가져다가 主尊 3상을 장식하고, 벽 위에는 53 불과 六類聖衆과 모든 천신·五岳神君을 그려서, 봄·가을 2계절의 10일 동안 善男善女를 모아 넓게는 일체의 舍靈을 위해 占察法會를 여는 것을 常例로 하라”고 했다. 지혜는 놀라 깨어 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神祠 자리 밑을 파다. 황금 160兩을 얻어 불사를 마쳤는데 신모가 가르쳐 준 대로 했다(『三國遺事』 권 5, 仙桃山聖母隨喜佛事條).

선도산의 신모는 토착신앙의 대지모신임이 분명한데, 불교신앙이 크게 유행한 분위기 속에서 불전을 장식하기 위해 황금 160兩을 비구니 지혜에게 시주하고 있다.

安興寺의 불전을 수리하기 위해 신모가 황금을 내리는 모습은 대지모신의 생육능력이 불교신앙과 융합되어 변형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그 황금은 신모를 모신 신사의 神座 밑에서 나온 것이다. 안흥사 주지였던 지혜는 선도산 성모의 신사를 함께 관할하였기 때문에, 신좌 밑에 있었던 황금 160냥을 파 낼 수 있었다. 지혜는 비구니였지만 토착신앙에서 신모를 받들던 여사제의 전통을 잇고 있었음직하다. 불교가 공인된 이후 삼국사회에서 여사제의 유풍을 간직하고 있었던 여성들이 불사에 시주자로서 크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안흥사 불전의 수축을 도운 선도산 신모는 불교신앙 내에서 관음의 모습으로 변신해 갔다. 衆生寺의 大悲像은 중국 천자의 寵姬의 초상화를 그렸던 畫工이 신라로 와서 이룩한 것이다. 그는 천자의 총희를 그릴 때 잘못하여 붓을 떨어뜨려, 그림의 배꼽 밑에 붉은 점이 찍히게 되었다. 그것을 지우려 했으나 잘 되지 않자 그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는 그대로 드렸다. 천자는 비밀스런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렸느냐고 하면서 화공을 극형에 처하려 하였다. 마침 승상이 화공의 정직함을 간하니, 천자는 어젯밤의 꿈에 본 형상을 그리게 하였다. 화공이 11면 관음상을 그려

바치고는 석방되었다.

천자의 寵姬와 11면 관음은 서로 연결이 가능했다. 선도산 신모가 본래 중국 帝室의 여자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화공이 그린 천자의 총희도 신모로 이해될 수 있을 법하다. 특히 배꼽 밑에 붉은 점이 그려지는 것은 신모의 생육력을 표현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중생사의 관음은 신모신앙과 밀접하게 얽혀 조성되었으며, 자식을 점지해주는 데에 효험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다. 新羅末에 崔殷誠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중생사의 관음전에 빌어 아들을 얻었다. 그가 崔承老였다. 또한 그는 강보에 쌓였을 때 후삼국의 동란을 만나 부모와 떨어지게 되었으나, 관음의 도움으로 생육되었다고 했다.

서민들이 관음에게 비는 대상은 자식을 얻고자 하는데 그쳤던 것은 아니다. 우금리에 살던 가난한 여인이었던 寶開는 敏藏寺의 관음에게 빌어 바다에서 조난당한 아들을 구했으며, 漢岐里的 여인인 希明은 분황사의 천수관음에게 빌어 눈먼 자식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런가 하면 世遶寺에서 명주 椽李郡 지역에 있는 莊舍의 智莊으로 과전된 調信은 낙산사의 관음에게, 당시 명주 태수인 金昕의 딸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빌기도 했다.

관음은 수도자가 성불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했다. 다음 내용이 이를 알려 준다.

신라 白月山の 仙川村에 努勝夫得과 担担朴朴이 산의 양쪽 기슭에 수도하면서 각각 미륵과 미타로 성불하기를 원했다. 수도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관음이 여자로 변신하여 이들을 시험하였다. 어스름한 저녁에 먼저 박박이 수도하는 곳에 들리 하룻밤을 묵고 가기를 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관음은 산을 넘어 부득이 수도하는 곳에 이르러 다시 하룻밤을 묵고 가기를 청하였다. 부득은 비록 수도하는 곳이지만 이미 해가 저물었고 또한 여인이 産苦를 가졌는 듯하므로 묵고 가기를 허락했다. 그날밤에 여인이 애기를 출산하므로 부득은 목욕물을 데워서 애기를 받았다. 새벽에 관음으로 변한 여인은 부득에게 애기를 씻긴 물에 목욕하기를 권하였다. 목욕을 마친 부득은 미륵불이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달려온 박박도 역시 남은 물에 목욕하고는 미타불이 되어 백월산 南寺의 양존으로 모셔졌다(『三國遺事』 권 3,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担担朴朴條).

백월산에 여인으로 化身하여 나타난 관음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각

각 미륵불과 미타불로 성불하게끔 도와 주었다. 一然은 그러한 관음에 대해 “날이 밝으려 함에 쌍둥이를 낳아 놓고 서쪽으로 향해 갔다”(『三國遺事』 권 3, 南白月二聖 노힐부득 달달박박조)고 하였다. 產苦와 연관하여 두 수도자를 성불시키는 관음의 모습은 대지모신이 지녔던 생육력, 곧 두 부처를 낳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관음이 서민들의 사소한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해 주는 모습은 자신의 생육력을 중생에게 베푸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불교신앙 내에서 관음이 여성으로 나타나서인지, 여성이 불사를 시주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그러한 여인은 관음과 연관하여 이해되기도 한다. 神文王代의 愷興은 國老로 존경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 고생하였으나 그 병을 고쳐 준 자는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관음의 화신으로 이해되었다. 관음신앙과 연관된 연기 설화는 불교사원 내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려준다. 실제 여성들은 불교사원의 단월로서 활약한 예가 많다. 그러한 사례를 최숙경은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삼국 말 원광의 占察寶 설립에 100 結의 토지를 내놓은 檀越尼가 전한다. …또 그밖에 梵鍾이나 불상의 제작에 시주자가 되었던 여성들을 찾아 볼 수 있다. 8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크고 아름다운 범종이 남겨지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上院寺 鐘의 단월은 休道里라는 귀족 여성이었다. 비록 진하지는 않으나 기록상으로 전하는 황통사 종은 현존하는 聖德王 神鐘(奉德寺 종)의 4배의 중량을 가졌던 것으로 시주자는 孝貞伊王三毛夫人이라고 되어 있다.¹¹⁾

昭聖王이 돌아가자 왕비인 桂花夫人은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재물을 희사하여 무장사의 미타상을 봉안하였으며, 백제의 미륵사는 武王 때에 왕비인 善化公主의 발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신라 하대에 景文王의 누이인 端儀長公主는 토지와 노비를 봉암사 등의 절에 희사하였다. 물론 이같이 많은 토지를 기증할 수 있었던 여성은 왕족이거나 귀족이었겠지만, 당시의 서민인 여성들도 일반적으로 불사에 시주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眞定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술을 절에 시주하고는 토기로 밥을 지어 먹었는가 하면, 金大城의 前世의 어머니는 소작하던 傭

11) 최숙경·하현강, 앞의 책, p. 105.

田을 시주하여 복록을 구하였다.

불교 사원에서 여성의 활발한 활동은 시주에 그친 것이 아니어서, 僧尼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성이 사원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수도자가 암자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기거하고 있었다. 앞에서 들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처자와 같이 기거하면서 수도하였거니와 廣德과 嚴莊의 成道를 도와 주었던 광덕의 부인은 본래 분황사의 婢로서 그들과 같이 기거하였다. 광덕의 부인이 노비로 표현된 것은 실제 그 신분이 노비였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절에 딸린 노비는 興輪寺의 낙성과 더불어 법흥왕이 궁중에 있던 친척들을 절로 보내면서 비롯되었다. 太宗王代에는 재상인 金良圖가 두 딸인 花寶와 蓮寶를 절에 보내어 婢를 삼게 했다. 그러다가 逆臣인 毛尺의 가족이 籍沒되어 사원의 노비가 되면서 그 신분이 떨어지게 되었다.

통일 이전 삼국시대에까지만 하여도 절에는 김양도의 딸과 같은 여성이 거주하면서 불사를 도우고 있었다. 그들은 실제 불교 사원에 혜택을 주는 존재들이었다. 사원경제면에서 여성은 시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도자의 成道를 돕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불교신앙 내에서 이러한 여성의 활동은 남성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불사에서 혜택을 주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대의 불교신앙에 관음이 중시되었다. 관음은 대지모신의 신앙을 흡수하여 불사를 돕고 혜택을 내리는 존재로서 신앙되었으며, 불교 사원 내에서 여성의 활동을 활발하게끔 했다.

4. ‘孝’의 강조와 여성의 德目

철기시대 이후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종속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국 고대사회에서 여성은 후대 사회와 비교하여 아직도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한 사정은 불교 공인 후에도 비교적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면서 그들의 지위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한 것은 합리주의적 유

교이념이었다.

삼국사회에 유교는 일찍 들어와 있었지만, 유교이념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유교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남녀관계의 사회적 지위에 큰 변화를 줄 정도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삼국시대에 유교적 도덕률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구려 故國川王이 죽자 왕후 于氏가 저녁에 비밀히 왕의 첫째 동생인 發岐에게 나아가 왕위에 오를 것을 권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우씨는 왕의 둘째 동생인 延優에게로 가서 그를 권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 이가 山上王이며, 우씨는 다시 그의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먼저 우씨가 발기를 찾았을 때 그의 꾸지람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운수는 돌아 가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 함부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요, 더구나 부인으로서 밤에 나다니니 어찌 禮라 할 수 있으리까? (『三國史記』 권 16, 山上王即位年條).

발기는 형수가 밤에 몰래 자기 집에 온 것과 함부로 왕위계승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꾸짖고 있다. 곧 그것은 유교적 도덕물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도덕물의 기준은 고려 중기 이후 합리주의적인 유교이념이 정립된 사회에서 제시된 것이었고, 실제로 당시의 고구려에서는 왕이 죽자 우씨가 동생을 방문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씨와 산상왕의 즉위 과정은 부여를 위시하여 당시까지 미약하지만 존재했던 妻嫂制의 유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金基興의 다음 설명이 참고된다.

미망인이 된 형수와 결혼하는 방식은 삼국시대 후반에 갈수록 점차 소멸되어 갔다고 보인다. 농업사회가 정착되면서 이같은 결혼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점차 수용되어 가던 유교문화의 관념으로 볼 때도 두 남편을 섬기는 사실이나 더구나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혼 관계는 예외적이었을 것이지만 민간의 경우 좀더 뒤에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²⁾

12) 金基興, 『새롭게 쓴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1974, p. 77.

처수제는 삼국시대 초기 사회에 크게 문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교적 도덕률에서 볼 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유교이념이 성립되어 감에 따라 초기 농경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을 둘 이상 가졌던 대우혼은 물론 처수의 풍속까지 용납되지 않았다. 유교이념이 점차로 수용되면서 그 도덕률이 여성의 덕목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자연 여성을 구속하고 제약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삼국시대에 유교적 도덕률은 원광이 귀산과 추항 두 청년에게 내린 世俗五戒 속에 담겨 있다. 그것은 忠과 孝 및 信·勇 등에 관한 것이다. 유교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것은 忠과 孝이며 그것은 상하를 잇는 종적인 유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삼국사회에서 유교이념인 충과 효가 같은 시기에 나란히 강조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왕권 중심의 귀족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왕실이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孝보다는 忠이 먼저 강조되었다. 내물왕대에 박제상의 충절이 강조되었지만, 그것과 아울러 孝가 내세워진 것은 아니다.

유교의 효가 강조된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에서부터였다. 六頭品 출신의 유학자들이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유교적 정치이념을 퍼면서, 충과 함께 효를 내세웠다. 그들은 불교를 비판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넓혀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出家가 孝道에 배치됨을 주장하였다.¹³⁾ 곧 출가하면 부모는 누가 모시느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통일신라 사회의 일반 서민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문제였다. 왜냐하면 대가족을 거느린 귀족이 아닌 서민의 경우, 출가하게 되면 실제로 부모를 돌보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反響을 불러일으키자, 불교계에서도 그냥 그것을 지나쳐 버릴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孝善雙美' 신앙을 성립시켰다. 그것은 출가함으로써 부모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가 되기 때문에, 출가와 효도를 조화하려는 것이다.¹⁴⁾ 이리하여 신라 중대

13) 李基白, 「新羅佛敎에서의 孝觀念——『三國遺事』의 孝善篇을 중심으로——」, 『東亞研究』 2, 1983;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p. 284.

14) 이기백, 위의 글, p. 287.

이후에는 효도가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元聖王代에 실시한 讀書三品科에서 공통 과목으로 제시한 것이 『孝經』인 것을 보면 당시의 사회가 효를 중시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신라 景德王代의 向德은 효도의 표본으로 이해되는 인물인데, 그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대접하였다. 聖覺도 향덕과 비슷한 방법으로 노모를 봉양하였다. 興德王代의 孫順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반찬을 빼앗아 먹는 어린 아들을 땅에 묻으려 하였다. 眞聖女王代에 孝宗郎은 효녀인 知恩을 도왔는데, 이 일을 들은 대왕이 또한 이를 표창하여 곡식과 아울러 집을 내리고, 그 살던 곳을 孝養里라 했다. 이렇듯 신라사에서 효도에 관한 기록은 신라 중대에서 하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효도가 널리 숭상되던 시기에 합리적 유교이념이 확산되었다. 그런 속에 유교의 도덕적 규범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덕목 또한 갖추어져 갔다. 아마 그것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모색되었겠지만, 그 이전 삼국시대에서도 간간이 나타나 있었다. 백제 蓋婁王代에 都彌부인은 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절을 지켰으며, 도미와 그의 부인은 왕의 박해를 받고 구려로 도망하여 함께 여생을 보내고 있다. 또한 眞智王이 죽은 후에 그의 혼이 桃花女에게 접근하자, 도화녀는 “여자가 지켜야 할 바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이니,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허락하겠느냐”(『三國遺事』 권 2, 桃花女 鼻荊郎條)고 거절하였다.

도미부인이나 도화녀의 경우는 여성이 정절을 지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신라 중대 초기에 여성의 덕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갔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 ① 저는 미천한 계집으로 남편과 함께 衣食하며 나라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니와, 지금은 獨身이니 어찌 감히 厚賜를 입어 욕되게 하겠습니까? (『三國史記』 권 46, 強首傳)
- ② 부인은 三從의 義로움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 과부가 되었으니 마땅히 자식을 따를 것이나, 元述은 이미 아버지께 자식 노릇을 못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어머니가 될 수 있겠느냐? (『三國史記』 권 43, 金庾信傳 下)

神文王代에 強首가 죽었다. 그 아내에 私物을 모두 절에 시주하고는 가

난하게 살자 조정에서는 벼 100 석을 내렸다. 그러자 강수의 아내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남편에 대한 은혜와 사후에라도 그의 명성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婦德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또한 戰場에서 패하였으나 구차하게 목숨을 구한 원술이 부친인 김유신이 죽고 난 후, 그의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으나 智炤부인은 끝내 그를 준엄하게 나무라는 부덕을 보여주고 있다.

원술을 꾸짖으면서 지소부인은 여성에게 三從의 도리가 있음을 말했다. 물론 여기의 삼종의 도리가 고려시대의 유교 이념에 의해 부연되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라 중대에 유교적 도덕률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덕목이 요구되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갖추어져 갔다. 강수의 부인이 남편의 명성을 생각하는 것이나 비슷한 시기에 딸갈의 침입을 막아내다가 장엄하게 전사한 素那의 경우에도, 그의 부인이 남편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에서 이를 생각할 수 있다.

지소부인이 삼종의 도리를 지적하면서도 그것에 앞서 아들을 호되게 꾸짖는 것은 남편의 뜻을 더 드러내려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부인이 남편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은 여성의 덕목으로 갖추어져 간 듯하며, 그것은 삼종의 도리를 성립시켜 가는데 능동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강수는 釜谷의 야장쟁이의 딸과 정을 통하고 지냈는데, 그의 부친이 재취할 것을 권하자 “조강지처는 내쫓지 못하고 빈천할 때 사권 친구는 잇을 수 없다고 하였사온즉, 그 여자가 아무리 천할 망정 버릴 수는 없다”(『三國史記』 권 46, 強首傳)고 하였다. 조강지처는 부인의 덕목과 연관하여 생각될 수 있다.

강수는 조강지처를 쫓아낼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에 여성들에게 삼종의 도리가 갖추어져 가고 있었고, 그것에 어긋나게 행동할 경우 쫓아낼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유교사상에 의해 여성의 덕목이 갖추어져 감에 따라, 그 덕목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행동에 제약이 가해졌다. 그것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음 내용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신라 景德王은 表訓大德을 불러 上帝에게 올라가 자식을 점지해 주도록 부탁했다. 표훈은 천제로부터 딸을 점지해 준다는 말을 왕에게 전하니, 왕은 그것을 아들로 바꾸어 달라고 청하였다. 다시 하늘로 올라간 표훈의 말을 들은 천제는 딸을 아들로 바꾸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했다. 그래도 좋다는 경덕왕의 청을 전하기 위해 표훈은 하늘에 올라갔다. 천제는 왕의 딸을 아들로 바꾸어 주면서, 표훈에게 “하늘과 인간은 서로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대사가 이웃 동네에 드나들듯 왕래하여 天機를 누설하므로, 이후로는 하늘 문을 막아 통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三國遺事』 권 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아들 낳기를 비는 것은 전제주의를 강화하려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며, 자기의 直系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경덕왕의 끈덕진 집념을 읽게 한다.¹⁵⁾ 신라 중대에 전제주의가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특히 왕실이라는 한정된 대상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의식이 싹터 있었다. 그것은 당시에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왕비가 축출당하는 것과는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남아 선호 의식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그 이전 사회와 비교하여 낮아졌음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사상이 수용되면서 여성의 덕목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교적 정치이념이 보다 확립된 고려나 조선시대와 비교하여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았다고 하겠다.

5. 맺음 말

신석기시대 이후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착된 초기 농경사회에서는 母權이 강했다. 금속의 사용으로 인한 철제 무기의 등장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과정을 맑게 했다. 부여를 위시하여 삼국시대 초기에 一夫多妻制는 이렇게 하여 생겨났으며, 부인의 투기를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그러나 그것은 婢妾만이 아닌 여러 아내를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 묶기 위해 반동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한국 고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15) 李基白, 「景德王과 斷俗寺·怨歌」, 『韓國思想』 5, 196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 217.

여전히 높았다.

가부장적 집단인 流移民이 이주해 오기 이전의 토착부족 세력들은 저마다 地母神 신앙을 가졌고, 대체로 여성들이 그 제사를 주관하였다. 삼국 시대에까지 여사제의 유풍은 많이 남아 있었으며, 老軀나 老母의 존재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한다. 그들은 關英이나 탈해 등 썩스러운 인물의 양육을 담당했는가 하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를 미리 알아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며, 혹은 왕의 정사에 깊이 관여하여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불교가 수용된 이후에도 사원 내에서 여성들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불교신앙 내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은 관음신앙이다. 한국고대의 관음은 주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신앙은 대지모신 신앙과 융합된 흔적을 보여준다. 神母의 생육능력을 흡수함으로써 관음은 불사의 시주에 깊이 관여하였는가 하면, 일반서민들의 모든 소원을 듣고는 그것을 채워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사원 내에서 여성들은 단월로서 또는 시주자로서 불사를 돕는 역할을 했다.

불교 수용 후에도 여성의 지위가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니었는데, 유교가 수용되면서 그러한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합리적인 유교이념이 수용됨에 따라 유교적 도덕률이 요구되었고, 忠道는 물론 孝道가 크게 내세워졌다. 효도의 정립은 그만큼 유교이념이 폭 넓게 수용되었음을 의미했다. 그 결과 여성에게도 유교적인 덕목을 쌓게끔 요구되었고, 三從의 도리가 서서히 갖추어져 갔다. 여성의 덕목은 그들의 분방한 사회활동을 제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고대사회에서 아직도 합리적 유교이념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었고, 고려시대 이후에 그것은 보다 폭 넓은 정치이념으로 도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성립하여 정치이념으로 확립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을 정숙하게 하는 덕목은 보다 강화되어 갔을 법하다. 그리고 보면 한국 고대사회에서 유교이념이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여성의 지위는 후대 사회와 비교하여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